

서울YWCA

2023. 3/4 vol.623



2023년
3·4월호
623호

그린워싱 바로 알기

그린워싱이란?

green +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어떤 제품 또는 기업이 '그린워싱'에 속할까요?

- 상충효과 감추기** 일부 친환경적인 특징 속성만 강조하고 전반적인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은 감추는 행위
- 증거 불충분** 라벨 · 제품 정보 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나 마땅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주장
- 애매모호한 주장** 광범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 사용
- 관련성 없는 주장** 내용물은 친환경과 무관한데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
-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인 요소를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적용하여 위장
- 거짓말** 거짓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
- 허위 인증 마크 사용** 존재하지 않는 인증마크를 상품에 부착

소비자가 그린워싱을 피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은?

'친환경 마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그린소비 생활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서울 YWCA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 공동기도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 봄이 오는 길목에 고난의 절기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아니겠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입니다. 봄이 성큼 왔는데도 여전히 겨울을 사는
모든 이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물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길을 우리도 따르렵니다. 아멘.

4월 공동기도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지요.
넘어져 울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 웃습니다. 깨지고 상한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됩니다. 못 살겠다며 죽고 싶다며
생의 끈을 놓아버린 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맞본 우리, 부활의 전령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울YWCA〉 2023년 3·4월호 통권 제623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조연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현숙 편집부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2 **즐거운 불편운동**
그린워싱 바로 알기
- 4 **시대를 살리는 말씀**
뉴 노멀 시대, 우리 사회와 YWCA 과제
- 6 **제 101회 정기총회 특집**
총회보고
신임회장 취임사
2023년 서울YWCA 비전사업
사업보고
- 14 **Y 칼럼**
좋은 관계 : 외부통제를 상호소통으로
- 16 **살롱한 교회 생활**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 18 **영화와 삶**
영화 <신문기자>
- 20 **서울Y 소식**
1·2월 뉴스
3·4월 행사안내
3·4월 캘린더
- 23 **위원장 · 부위원장 임명**
- 26 **후원 소식**
- 30 **알림터**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한소제, 서울Y 6대 회장

-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 www.facebook.com/seoulywca
- 검색창에 서울YWCA
- blog.naver.com/ywcaseoul
- 검색창에 서울YWCA

뉴 노멀 시대, 우리 사회와 YWCA 과제

“개혁된 교회라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전 총장

Y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살피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진리와 잇대어 있는 것이며,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기관들과도 공동선을 위하여
연대적 관계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인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세 글자는 '코로나'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어려움에 비례해 커집니다.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 안의 속사람, 우리의 민낯입니다. 코로나 19는 나와 너,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와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것이 팬데믹, 즉 전세계적 재난이기에 세계 여러 나라와 정부, 국제기구들도 기대에 못 미치는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VUCA 시대 도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는 민낯으로 드러난 부족한 면들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수행은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격동적(Volatile), 불확실(Uncertain), 복잡적(Complicated), 모호한(Ambiguous), 이른바 뷰카 VUCA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는 '뉴 노멀(New Normal)'입니다.

뉴? 노멀? 모두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뉴'와 '노멀' 즉 새로운 규범(기준)라는 말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 지속된다는 것, 즉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뉴 노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사이버 학교만큼 사이버스러워야 한다는 도전과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교육과 공동체 형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과제는 YWCA와 같은 시민단체에게도 상당한 변혁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많은 것이 변해야 합니다.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더욱 온라인 디지털 세대를 섬기고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소통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전환은 문화의 변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의 문화적 변동의 주요 동인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역량, 즉 디지털문해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과 문화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세대들의 수용과 그들의 주도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공동체적 합의와 다양한 세대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붙잡고 지켜야 할 것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원칙과 우리 삶과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일, 또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Y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살피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진리와 잇대어 있는 것이며,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기관들과도 공동선을 위하여 연대적 관계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인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속한 공동체는 구현하여야 할 정체성과 오늘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개혁된 교회라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뉴 노멀!

결코 우리가 익숙한 어제까지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지켜내고 지속되어야 할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Y

제101회 정기총회

회장 **조연신**, 부회장 **배은경 · 최한나** 선출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이어갈 것



회장 **조연신**

서울Y는 제101회 정기총회이자 (사)서울YWCA 제3회 정기총회를 1월 31일 대강당에서 열었다. 오후 1시부터 이사투표를 시작, 오후 2시에 개회예배로 시작된 본회의는 시상, 2022년 감사·결산·사업보고,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개표결과 보고, 당선 이사·감사 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이유림 회장은 총회에서 “서울Y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짐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긴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회의 선한 변화를 꿈꾸고 이끌며 살아있는 운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23년에는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칠 계획이다. Y



제1부회장 **배은경**



제2부회장 **최한나**



제1서기이사 **이복희**



제2서기이사 **이희진**



제1회계이사 **정수경**



제2회계이사 **전영지**

새 이사 선출

164명의 정회원이 참가해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가나다순)

김순임 배은경 배정미 백향덕 이경연 이복희 이옥희 이유림
이은령 이지선 이희진 전영지 전현숙 정선덕 정수경 조연신
최한나 한미미 한혜영 황성연 현명금

감사 경규연

추모

2022년 별세한 자원활동가의 Y에 대한 헌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추모 故 양미리수 위원

명예이사 추대

만 65세 이상 이사로서 헌신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사를 명예이사로 추대했다

명예이사 김명희 김선희 조종남

감사패 증정 · 시상

2022년 서울Y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근속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회원증모를 많이 한 회원을 표창했다

감사패

삐띠통 씨제이제일제당(주) 정동제일교회
(주)모나미 (주)스타벅스 코리아 (주)엔에스쇼핑
(주)엘지생활건강 (주)코스콤
채드웍송도국제학교 '영어성장판 쑥쑥' 동아리
권도웅(고문) 김재신(이사) 김정순(위원)
박소현(회원) 박위자(명예이사) 박정희(증경회장)
배은경(이사) 신정자(평생회원) 윤현숙(명예위원)
윤혜선(역대이사) 이숙현(역대이사)
이연배(증경회장) 이유림(회장) 이행자(증경회장)
전현숙(이사) 정영숙(역대이사) 조종남(증경회장)
지복임(역대이사) 차귀숙(증경회장) 최한나(이사)

봉사상

50년 이행자
40년 김은자 서명숙 서옥덕
이연배 이영신
30년 이명순
20년 김상희 윤현숙
10년 서해영 안승계 이선희
이윤선 임혜원 정선덕
2000시간 박희신

근속상

30년 근속실무자 이인순
20년 근속실무자 성호숙
10년 근속실무자 강주현 김경화 오경아
10년 근속강사 권기숙 박금숙 윤애경
안미옥 안유림

회원증모 개인상

우영숙 정수경 조연신 이종미 이유림
김혜옥 임혜원 김재신 배은경 한혜영
민혜경 최한나 백향덕 이인순 성지희
김경화 이복희 김선희 김양선 박진선
최 봄 조종남 김명희 심혜영 황성연
이옥희 김진숙 송길례 백옥선 김은희
이경연 김선자 김선희 전현숙 강수미
오점희 강민아 나순복 배정미 양진화
이은령 정선덕

이연배 봉사상

김영자(청소년팀 위원)

새 회장단 선출

정기총회가 끝난 직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는 임기를 마친 이유림 회장에 이어 조연신 회장이 3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1부회장에는 배은경 이사, 제2부회장에는 최한나 이사가 뽑혔다. 조연신 신임회장은 건물관리사업부 위원을 시작으로 서기이사, 창립 100주년 모금분과 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새 회장단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Y를 이끌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조연신 회장

지난해 맞이한 창립 100주년에 이어 한 세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 서울YWCA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곤 했던 서울YWCA. 해마다 열린 어린이날 행사를 손꼽아 기다리다 참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시절, 동생과 함께 서울Y 청소년 캠프장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에 연주자로 올랐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재능나눔으로, 떨리기도 했지만 나눔이 주는 설렘과 벅찬 감동을 깨닫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또 위원과 이사로서 봉사하며 만나고 있는 서울Y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서울Y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일할 수 있어 기쁘면서도, 그 책임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희생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서울Y.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회장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회원 앞에서 다짐합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1년 서울Y는 사단법인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영성과 운동성,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해 서울Y가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창립 100주년 모금분과위원장으로 ‘내일빛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서울Y 재정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관인 서울Y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서울Y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되는 일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올곧은 발걸음으로 앞길을 탄탄하게 열어주신 이유림 회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중경회장님들과 선배 이사님들의 헌신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으려 합니다. 배은경·최한나 부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단 그리고 언제나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이사, 위원, 실무자 여러분과 손잡고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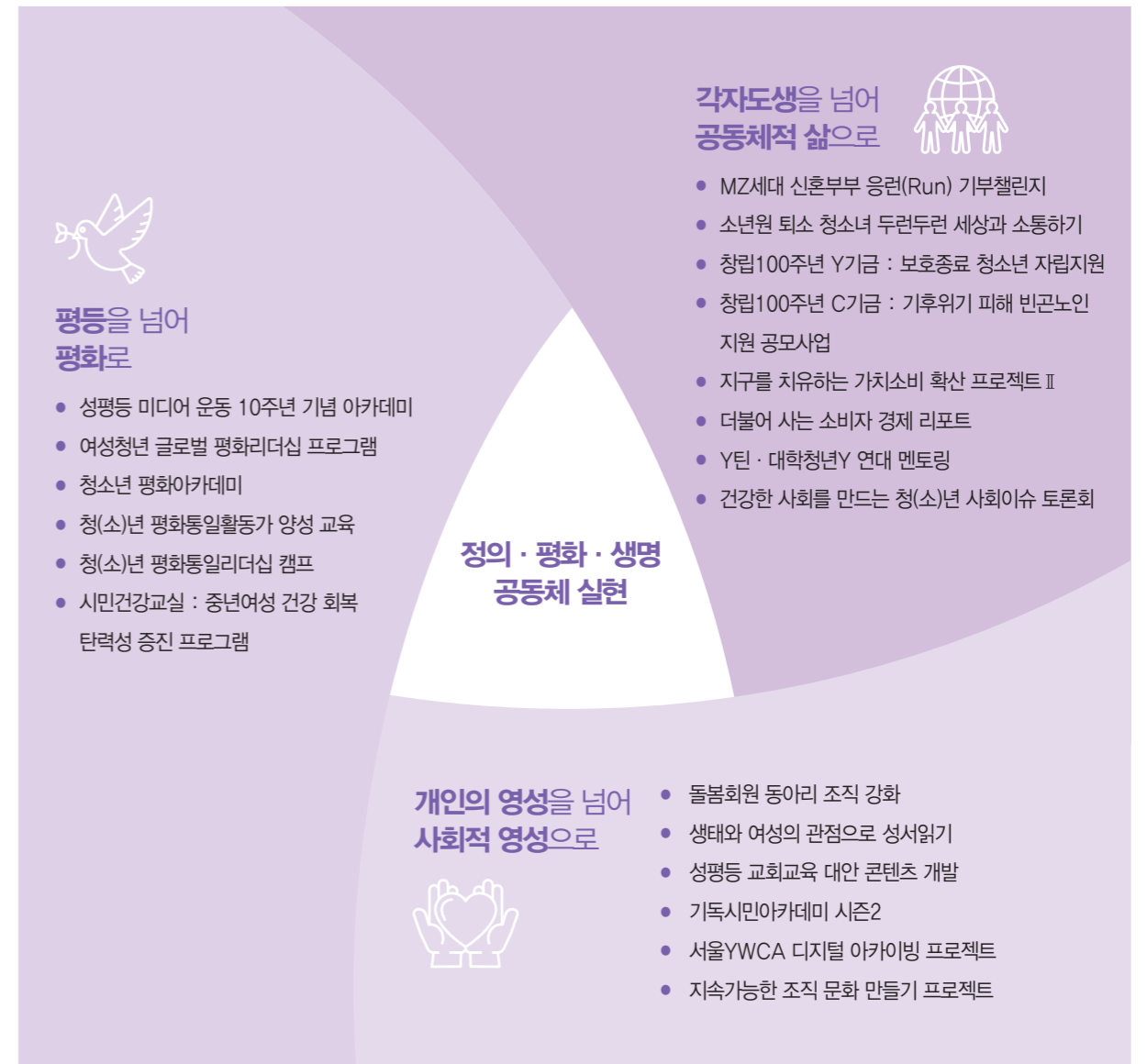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에 물을, 사막에 길을 내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원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기도와 후원으로 서울Y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서울YWCA 비전사업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023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난해 22개의 프로젝트에 이어, 2023년에는 20개의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2022년 사업보고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전개



김양선 사무총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절, 9절

가슴 벅찬 설렘으로 맞이한 서울YWCA 창립 100주년, 지난 100년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기쁨으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동체 의식과 연대, 소통 기능이 약화된 현실에서 서울Y는 엔데믹 체제에 적응하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사단법인 출범 이후 새로운 구조와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문제나 위기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는 매일 ‘창립 100년을 준비하는 중보기도회’로 Y의 현안은 물론 세계, 나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전환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세웠던 열린 비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는 2022년의 모든 사업과 행사를 이끌어가는 궤도 역할을 해주었으며 정의·평화·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략 ‘평등을 넘어 평화로’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를 바탕으로 22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했습니다.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평등을 넘어 평화로

서울Y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갈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결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시민 등 당사자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주제로 월간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DMZ를 걸으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평화 걷기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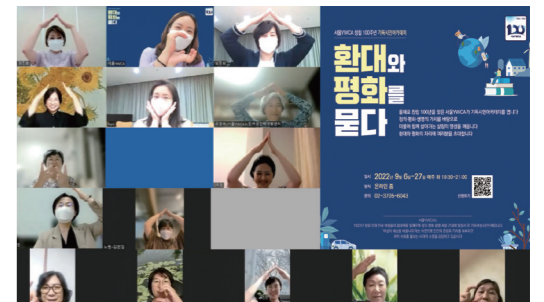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생태 등 생명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부부 챌린지,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재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미래포럼 '서울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 100년,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다시 공동체를 외치다'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기독교 영성이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되도록 신앙과 사회문제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을 개발했고 기독교 페미니즘 입문서인 <살롱, 페미니즘입니다>를 기반으로 한 교회리더십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 기독교여성들의 리더십 개발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독교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

부속시설



강남 - 청소년 진로 연합동아리 '드림ON' 발대식

부속시설은 엔데믹 체제 전환으로 모든 사업을 대면으로 진행하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봉천은 지역과 더욱 밀착하며 특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했으며 영등포와 노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부터 취·창업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강남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사업, 평화적으로 존중하는 학교폭력예방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누리봄은 자원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작업장 '봄봄'의 활발한 운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회원활동

회원활동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연령의 회원을 대상으로 정의·평화·생명 교육 및 포럼을 개최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동아리모임, 특강 등 많은 회원 활동들이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도력·훈련개발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훈련은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며 서울Y의 지도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영성과 전문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이사교육, 자기주도학습, 정책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홍보·재정

홍보는 SNS 중심의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홈페이지는 '보도자료' 코너를 신설해 언론홍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기억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꿨다'를 주제로 창립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울Y 재정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며 임대·대관의 안정적 운영, 외부공모사업의 지속적 선정으로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전 '기억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꿨다'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Y는 연중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오랜 기간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는 꾸준한 분과 모임을 통해 창립 100년을 준비해왔으며 2022년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해였습니다.

비전정책분과는 서울Y에 대한 회원, 시민, 오피니언리더의 인식조사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서울Y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 제100회 서울Y 정기총회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기도모금분과는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 빛 캠페인'을 마련,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100년에도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분과는 활동가 178명의 참여로 완성한 성경필사 '씨Bible'을 100회 정기총회에서 봉헌했으며, 이사와 실무자의 릴레이 기도문을 모아 매일공동기도문도 발간했습니다. 100년사 출판분과는 집필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2024년 12월 발간을 목표로 집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인 12월 9일, 100년 전 서울Y가 시작된 승동교회에서 활동가와 회원, 시민이 함께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당시 서울Y 선배님들의 첫 마음과 사명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 선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결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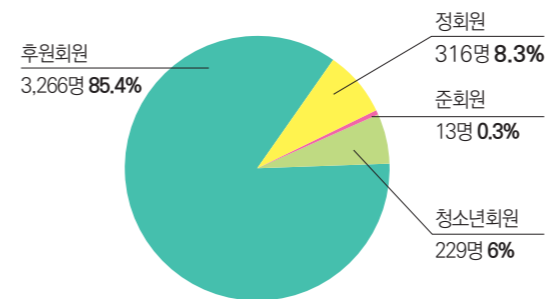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비전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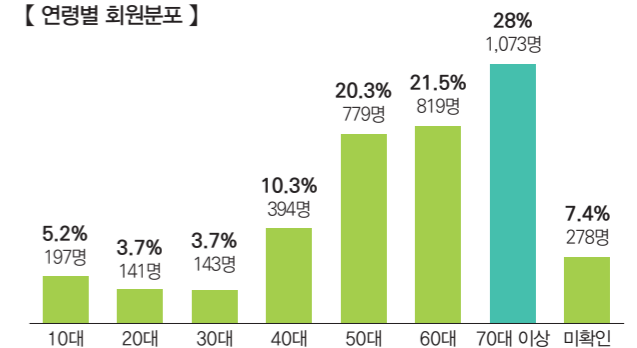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 후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회원·시민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사업보고를 드립니다.

2022년 회원 현황

회원 3,824명



【연령별 회원분포】



좋은 관계 : 외부통제를 상호소통으로



진희경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센터장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좀 더 질 높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택이론을 발전시킨 윌리엄 글래서(William Glasser, 1925-2013) 박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관계를 돌보는 7가지 습관

글래서 박사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외부통제'적인 7가지 습관 대신 관계를 '돌보는' 7가지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관계를 파괴하는 외부통제적인 치명적인 습관은 비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위협하기, 벌하기, 매수 또는 회유하기이다. 이러한 습관들을 멈출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는 행복의 길로 잘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돌보는 습관은 경청하기, 존중하기, 수용하기, 지지하기, 격려하기, 믿어주기, 불일치하는 차이점들 협상하기이다. 특히 경청하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의 하나로 경청을 통해 존중, 수용, 지지, 격려와 신뢰를 전하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기를 추천한다.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방법(Effectiveness Training : E.T.)을 소개한 토마스 고든(Thomas Gordon, 1918-2002)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나의 신조(A Credo)'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당신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소중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개인적 욕구를 가졌으며 또한 그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가진 독립된 개인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해결보다는 관계향상에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

계, 교사와 학생, 노사관계 등 관계가 향상된다. 최소한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관계가 향상되고 유지될 때,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목적은 관계향상에 있지만, 관계가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접한다.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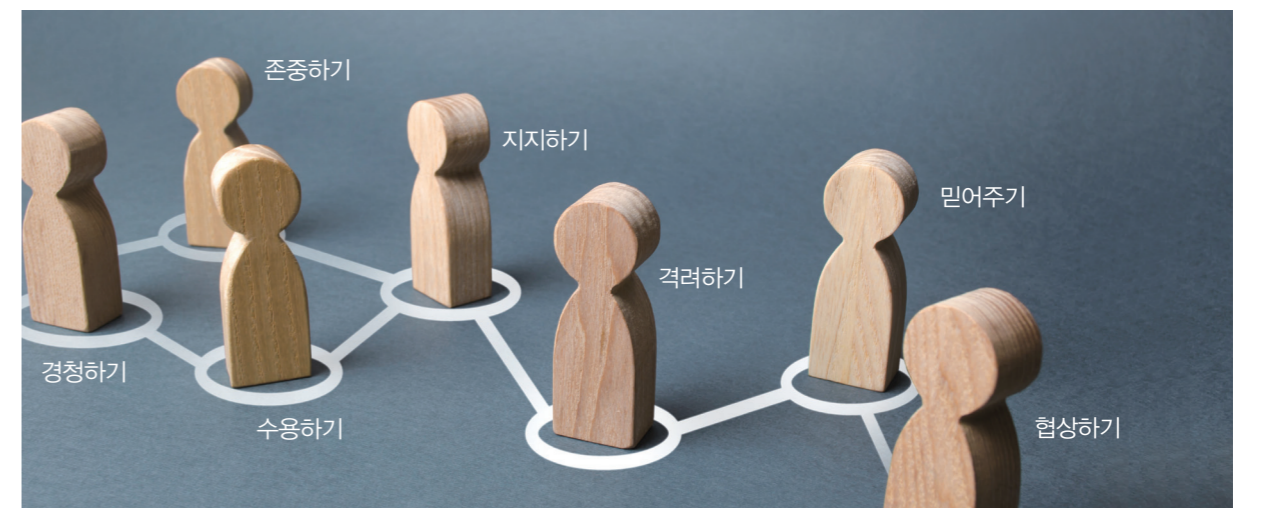
상대방이 문제를 소유했을 때, 즉 상대방 마음의 평온이 깨어졌을 때 그 힘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의사소통기술 '반영적 경청'을 사용해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상대방은 경청, 지지와 격려, 수용, 존중받는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귀하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향상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된다.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상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하고 옳은 말, 곧 충고와 훈계, 논리적 설득, 분석, 강요, 위협, 더 나아가 캐묻기, 비난, 조롱 등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는, 비난, 강요, 위협은 물론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해 말해주는 충고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득, 분석 등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 '...그랬구나', '...답답하구나', '...걱정되는구나' 등의 반영적 경

청은 당연한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감정의 홍수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나 자신이 문제를 소유했을 때, 즉 내 마음의 평온이 깨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한 비난 없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의사소통기술 '나 전달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방어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로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동시에 존중하며 함께 해결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부통제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르다고 보는 믿음,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태도이다. 외부통제의 습관 대신 관계를 돌보는 습관 선택하기를 바란다. 걸림돌이 되는 말 대신 상대방에 대한 '반영적 경청'으로, 상대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 대신 '나 전달법'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

살롱한 교회 생활이란 '성평등한 교회', '차별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Y는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을 제작했다. 교회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담았다.

평등한 설교편

저는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새내기 신자예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고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여성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다.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불순종하고 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여자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교회는 다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내기 신자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성역할을 고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만약 이 편지를 받은 목회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평등 설교를 위해 약속해요!

② 성평등적 설교로 새로워져요

성평등적 설교는 남성을 중심에 두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주변부로 제한했던 방식을 지양하는 설교입니다.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설교자들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할 때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말해 왔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질투하여 학대했고,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다.' 이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겨진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남성중심적 해석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조상들 중 하나였으며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엘 로이'라 새롭게 이름 지어 부른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성평등적 설교가 보편이 되게 해주세요.

① 성차별적 설교를 하지 않아요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면 안 된다' 등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거나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능력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설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혹은 상처, 수치심,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갖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차별적 설교는 어떤 식으로든 성도와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성차별적 설교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고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존재임을 선포해 주세요.

③ 성경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선포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등 성서 속 남성의 이름은 줄줄이 말할 수 있지만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축소되거나 삭제되고 잊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보다 앞서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래의 요약본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미리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구약의 '첫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존재만으로도 오늘의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선배 여성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숨겨진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설교해 주세요. ♪

- ①
평등한 설교편
- ②
평등한 사역편
- ③
평등한 교육편
- ④
평등한 언어편
- ⑤
평등한 관계편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요즘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화 속에도 길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를 놓친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시대를 맞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를 찾아 보는 일이 수월해졌다.



이경순
명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신문기자 新聞記者
The Journalist 2019
원작 모치즈키 이소코
감독 후지이 미치히로
출연 심은경(요시오카 에리카), 마츠자카 토리(스기하라 타쿠미)
장르 드라마 (113분)
제작국 일본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2020. 3. 11.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일본 영화 <신문기자>

일본 열도를 뒤흔친 아베 정권 학원 비리 스캔들
여론을 조작하려는 정보기관에 맞서 진실 파헤쳐

일본 영화 <신문기자>는 도쿄 신문 사회부 모치즈키 이소코(望月衣子) 기자의 자전적 에세이집 [신문기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모치즈키 기자가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이에 여사가 학교재단 모리토모와 가계학원에 특혜를 주는데 직접 간여했다는 스캔들 등 아베 정권의 다양한 비리 스캔들을 심층 취재한 경험이 책과 영화에 담겼다.

모치즈키 기자는 2017년 6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23차례나 신랄한 질문을 퍼부어 스가장관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유명해졌는데 뉴욕타임스(NYT)는 모치즈키를 “권위주의적 일본 정부에 맞서는 영웅”이라고 평했다.

여주인공 역할로 한국 여배우 심은경이 캐스팅되면서 한국에서도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인 만큼 제작 기획 초장부터 극우세력의 거센 반발과 위협을 받아 일본 배우 중에는 여주인공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심은경이 캐스팅 되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온다.



일본 개봉 포스터



원작자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

원작자 모치즈키 기자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한 “심은경의 연기에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할만큼 심은경의 일본어 연기는 탁월했다. 그 결과 제43회 일본 아카데미는 심은경에게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최우수여우상 트로피를 안겨주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언론의 본분을 잊고 정권과 결탁하는 권언유착(權言癒着)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어느 관람자의 소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여우상 수상한 심은경



신문사 편집국 광경

즐거리 도쿄의 작은 신문사 [토우토 신문] 사회부 기자 요시오카 에리카는 아베 총리 부부가 얽힌 대학 비리 사건을 캐려고 하지만 편집장에게 거절 당한다. 그녀의 아버지 요시오카 타다시는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던 신문기자였는데, 정부의 정보기관 내각정보조사실이 오보라고 내몰아 그를 자살하게 만들었다. 내각정보조사실에 근무하는 스기하라 타쿠미는 대학 비리의 실체를 밝히려려고 하지만, 타다 실장의 방해를 받는다. 스기하라가 존경하는 선배 칸자키는 대학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리자 자살한다. 칸자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스기하라는 비탄에 빠지고, 대학 비리 조사는 없던 일처럼 흐지부지되려 한다.

칸자키의 장례식장을 찾아간 요시오카는 스기하라와 만나 함께 내각정보조사실의 실체를 캐기 시작한다. 총리에게 직보하는 정보기관 내각정보조사실의 고위 관료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 SNS 계정과 허위, 악성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

요시오카는 스기하라의 도움으로 “대학 비리 스캔들 재점화” 기사를 특종 보도하고 요미우리, 아사히 등 중요 신문사에서도 후속 보도를 시작하면서 정권에 의해 묻힐뻔한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

회장 이·취임예배



왼쪽부터 이유림 전임회장과 조연신 신임회장

서울Y는 회장 이·취임예배를 2월 14일 대강당에서 드렸다. 지난 4년 동안 수고한 이유림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서울Y를 이끌어갈 조연신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유림 회장은 이임인사를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했다. 조연신 신임회장은 취임인사에서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해 서울Y가 전개하는 다양한 사업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도와 참여, 후원으로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연신 신임회장은 서기이사, 부회장, 창립 100주년 모금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노원

집단상담 개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력보유여성대상 취업준비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직업진로를 설계하고 취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총 9명의 구직여성 이 참여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

학교폭력예방강사단 교안 개발 워크숍

강남청소년수련관 학교폭력예방센터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교안 개발 워크숍을 열었다. 센터 소속 15명의 강사가 모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5가지 주제를 정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안을 개발했다. 개발된 교안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리봄

'테마가 있는 가족회의'

누리봄은 2월 15일 올해 대면으로 열리는 첫 모임으로 '테마가 있는 가족회의'를 삼모아트센터에서 가졌다. 1년간 진행될 가족모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봉천

경복궁 나들이 '마음설날'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설날을 맞아 1월 18일 지역주민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했다. 모동교회의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한복대여, 문화해설 등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안전하게 진행됐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이웃이 서로 정을 나누며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챌린지

서울Y는 2023년 1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 100명과 함께 영양 건강 challenge(챌린지)를 진행했다. 다섯 가지 테마별 주제에 따라 [1회차 건강한 식탁, 2회차 특별한 식탁, 3회차 희망찬 식탁, 4회차 평화의 식탁, 5회차 응원의 식탁]

기획된 영양 건강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 위기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게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 격차 해소와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탁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영양 건강 challenge는 하나금융그룹 재단이 후원하는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 시즌2'의 일환이며 참가 여성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 시즌2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challenge

5차 | 응원의 식사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예쁘고 정갈한 식사



밀피유나베에 고기뿐만 아니라 많은 야채들이 조화롭게 있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평소 야채를 많이 안먹었는데 밀피유나베를 먹으면서 야채도 많이 먹게되고 좋은 식습관을 얻어간 것 같아요!!

예쁜 음식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고 행복했어요. 요리하는 과정이 재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5주동안 한 끼 식사를 건강하고 알차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10주년 기념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서울Y와 한국여성평등진흥원이 함께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 **일정** 3월 14일(화)~23일(목) 19:00~21:00 (매주 화·목, 주 2회, 총 4회기)
- **장소** 5층 다목적실
- **대상** 성평등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시민 30명
- **내용** 젠더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예능, 드라마, 웹툰 등)
- **문의** 02-3705-6070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양성평등 미디어 시민 모니터단 모집

서울Y는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니터단(매체모니터단, 심의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 **주요 활동** 정기 연구모임 참석
미디어 모니터링 내용분석 보고서 작성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지원 방법** 서울Y 홈페이지에 안내
- **지원 마감** 3월 26일(일)까지
- **문의** 02-3705-6070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3월 10일(금) 4월 14일(금) 10: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3월 16일(목) 4월 13일(목) 13: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2023년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2월 14일(화) 열린 이사회에서 조연신 회장은 16개 상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이다.

임원회

회장 조연신
부회장 배은경 최한나
서기이사 이복희 이희전
회계이사 정수경 전영지
사무총장 김양선

법인사무팀

국장 민혜경
부장 박혜리 **간사** 박은지

상임위원회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장 배은경 **사무총장** 김양선

재정부

위원장 최한나
사무총장 김양선
부장 박미용 **팀장** 백승자 **간사** 배진영

여성참여팀

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 김순임
국장 최 봄 **부장** 김예리 **간사** 이기쁨

회원활동팀

위원장 황성연 **국장** 민혜경
부장 김경화 **간사** 강수미

청소년팀

위원장 배정미 **국장** 최 봄
부장 양진화 **간사** 안지선

국제협력팀

위원장 현명금 **부위원장** 한미미
국장 최 봄 **간사** 이지은

소비자환경팀

위원장 이복희 **국장** 최 봄
부장 박진선 **간사** 김현숙 김진아

시설운영·사업팀

위원장 이은령 **국장** 민혜경
부장 오정희 **간사** 김진서

평생체육팀

위원장 이지선
국장 민혜경 **부장** 오경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한혜영 **국장** 김혜옥
부장 이인순 **팀장** 정승원
간사 윤희경 **사무직원** 박은숙

홍보출판팀

위원장 전현숙 **부위원장** 전영지
국장 민혜경 **부장** 성지희 **간사** 김현숙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경연
관장 김은희 **부장** 김혜진
과장 김철민 **황윤희** 최지희 임선미
사회복지사 황소영 이정훈 전하라 최민영
황윤수 김지호 이연수 용현중
김예은 조한솔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이희전
관장 강민아
부장 김현일 **과장** 성윤수
팀장 백미리 박미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백향덕 **관장** 우영숙
부장 방윤옥 **과장** 성호숙 **팀장** 구수영
간사 이유리 최선미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정선덕 **관장** 이종미
부장 강주현 **과장** 심혜영 **팀장** 이슬기
청소년지도사 김소망 최유정 김지은 김현진
다함께키움센터(청담) 센터장 김미라

누리봄

위원장 정수경 **관장** 백옥선
팀장 정은하 정용주
사회복지사 윤미소 유현숙 이혜원 이은희
최유나 백은선

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유림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은령

특별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최한나 **국장** 김혜옥

회원증모위원회

위원장 황성연 **관장** 우영숙

큰장날위원회

위원장 이은령 **국장** 민혜경

회원건강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선 **국장** 최 봄

복지사업단

위원장 배은경

CALENDAR

2023 **3**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4
6 · 명예위원 모임 11:00	7 위원회 재정부 11:00	8	9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0	11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3:00 돌봄회원 임원훈련 13: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5일) 10:00
13 · 역대이사 모임 11:00	14 이사회 10:00	15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16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17 위원회 강남Y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18
20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1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2	23	24 · 누리봄 문화체험 13:00	25
27 위원회 봉천Y 11:00	28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9	30 · 이사·위원 연구모임 10:00	31	

CALENDAR

2023 **4**

월	화	수	목	금	토
					1 · 누리봄 문화체험 13:00
3	4 식목일 위원회 재정부 11:00	5	6	7	8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돌봄회원 소풍 10:00
10 · 역대이사 모임 11:00	11 이사회 10:00	12	13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3:00	14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15
17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18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9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5:00	21 위원회 강남Y 11:00	22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6	27	28	29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2023년 1월

내일빛 후원



민병옥 명예이사

“사랑하는 서울YWCA의 100년을 보내고 또 다시 100년을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멘토링 후원



권은정	김민아	김상희(김하나)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예정원
월요까페	유지현	이수미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정모아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하나	최혜영	한혜영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호신	민혜경	박대화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재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세연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월요까페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임지영	장경미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콤마,와인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3년 1·2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김보미	김보현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진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재	김승찬	김승현	김시은
김애숙	김애주	김애미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지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영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호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학희	김하나	김해정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승은
노정자	노혜환	당효성	동지현	류종철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소정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윤	박명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인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미리	백민주	백성원	백순녀	백옥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정화	백 준	백진희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중우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창희
신충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정남	심정자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하나	안혜리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염경자	염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아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명숙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회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안	윤철웅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덕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상원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영 이수옥 이수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재 이승진 이승한 이승희
 이시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아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옥례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임제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은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영 이진이 이창희 이재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한국 이현순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은
 임성준 임양수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순종 장승화 장영랑
 장영원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 훈 전덕기 전미덕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전혜인 전흥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중화 정중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윤 정혜진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동일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송분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불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신지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형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지혜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시은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주)비파인클라우드 (주)시공디자인 양재2동어린이집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향기나무

IOPE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NEW PDRN X CAFFEINE SHOT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 문의 02-3705-604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소식

정영룡 국제협력팀 위원
2022년 12월 12일(월) 딸 김주언 출산

서명숙 명예위원
1월 30일(월) 배우자상

강영옥 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
2월 18일(토) 배우자상

2022년 생활돌보미 제명 회원

여성능력개발팀은 재교육 장기결석이나 활동부진, 자진탈퇴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사돌보미

1-53기 김미환 박정자 이영숙 이상배 조성순 홍정수
최영희 심화자
55-130기 박미경 오영자 성순봉 박연우 홍윤자 민정숙
배현원 최정심 박외희 정지분

아기돌보미

14-67기 유순옥 김영선 이병숙 신선희 이향엽 안영란
은정수 강경희 김화자 박하연 송계홍 이지숙
정혜연

산후조리사

2-68기 김경숙 정은주 권인숙 나성에 황옥경 임점숙

세이프맘

13-25기 이경자 이영자 정 숙 강은희 전수자 이수목

간병사

59-149기 배일수 박성숙 강태은 정유경 최종순 이연옥
박경숙 이영순

2023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청년YWCA 협의회

회장 고하은(동국대대학원, 피스톡톡)
부회장 김태연(연세대, 씽크머니)
서기 이송학(이화여대, 씽크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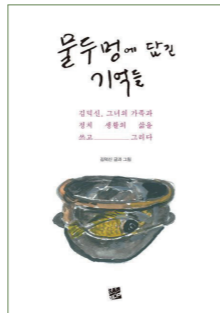
Y-틴 협의회

회장 주예나(대원외고, 키다리학교)
부회장 신소해(동구마케팅고, 울력)

회원이 낸 책

물두멍에 담긴 기억들

김덕신 역대이사 글·그림
코드미디어 펴냄



김덕신, 그의 가족과

정치 생활의 삶을 쓰고 그리다

‘수많은 이의 도움 없이는 국회의원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며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진 김덕신 역대이사가 쓰고 그린 삶의 이야기.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6·25 전쟁으로 생이별했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 유학생활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치 생활을 진솔한 문체로,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가족, 정치 생활 세 부분으로 나눠 총 25편의 짧은 글을 그림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모든 삶의 고락에 초연한 자세로 감사해하는 단단한 정신이 마음에 남는 책이다.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ISA KNOX



한소제

서울Y 6대 회장
한국걸스카우트 창설자
(1899 - 1997)

1899년 평양에서 태어난 한소제 선생은 승동교회가 운영하던
승동남녀소학교를 마치고 정신여학교와 동경 기독교계 고등학교를 거쳐
1923년 동경 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26년부터 2년간 미국 미시간주 엘비온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 후에는 전주·신의주·서울 등지에서 진료 활동을 펼쳤다.

사회활동에도 뜻을 둔 선생은
1946년 대한소녀단(한국걸스카우트 전신)을 창설했다.
1950년 4월에는 본회 회장으로 취임해
1952년까지 피난의 역경에서 본회를 이끌었다.
이후 대한YWCA연합회 이사로 Y-틴부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봉사했다.
1961년 남편인 신동기 전 필리핀대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여생 동안 불우한 유학생들을 돌보는 데 힘썼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필라테스·피트니스 3705-6030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y.or.kr 888-7983